

트럼프 피격...美 대선 요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버틀러 팜쇼에서 열린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유세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세 중 귀 뒷부분 관통상... 병원서 치료받고 퇴원 총격범 현장에서 사살돼... 각국 정상들 규탄 성명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13일 오후(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뒷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면서 긴급 대피했고, 병원에서 안전을 확인한 뒤 긴급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세가 진행중이던 보안 구역 밖 건물의 지붕 위에서 총을 쏜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도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이 정치 폭력 행위를 일제히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의 자세한 경위나 배후가 확인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대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화당은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메시지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됐다며 공세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이날 오후 6시5분(미국 동부시간)께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마련된 야외 무대에 유세를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입국 이민 숫자를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던 중인 6시10분께 갑자기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그는 오른손으로 오른쪽 목위를 만진 직후에 발안대 밑으로 급히 몸을 숙였고, 바로 경호원 여러 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दान으로 뛰어 올라갔다. 총격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S) 요원에 의해 사살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고, 지지자들은 이에 환호하며 "유에스에이(USA)"를 외치기도 했다.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총격범이 총기 반입이 금

지된 유세장의 보안 구역 밖의 높은 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는 연단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쏘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공격형 소총인 AR-15형 반자동 소총이 회수됐으며, 미국 재무성 산하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구매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암살 시도에 연루된 용의자는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20세 백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로, 등록된 공화당원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총격범 외에도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미국 정치권과 유세객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은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를 규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병을 기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폭력은 미국에 발붙일 곳이 없다.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월 209만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지난 심의에서 남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랐던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

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1만원대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명한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의 실질 임금 삭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8명 본선행

민형배 의원 통과...호남 정치인 지도부 입성 여부 관심

8월 18일 전대서 5명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 예비경선을 통과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호남 최고위원'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3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호남 정치인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선출직 지도부 입성에 실패, 호남 정치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민 의원의 본선 성적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민 의원을 포함해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의 전현화·이인주 의원(선수·기호 순)을 포함한 8명이 14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한준호·강선우·김병주 의원 등 대선 의원들도 예비경선 통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원외 인사

가운데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조선의 이성운 의원과 박진환·최대호·김지호·박완희 후보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앞서 민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운전 중이며, 이 체제로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재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해 출마했고,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도당을 시작으로 전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후 8월1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사·전남도당 합동연설회는 오는 8월4일 오전, 오후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본선 투표에서는 대의원 투표 14%, 권리당원 투표 56%, 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새 지도부로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펜션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 부실 ▶6면
- 파리 올림픽 - 배드민턴 금메달 3개 도전 ▶18면
- 꿈꾸는 신중년-골벌써의사 김용환씨 부부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공공주도 주민참여 개발, 이익공유 모델 확산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개발사업 확산

계획 용량 30GW

신안	11GW (8.2GW)
영광	6.6GW
여수	5.5GW
진도	3.2GW
고흥	1.2GW
완도	1.2GW
해남	0.9GW

신안 진적화단지 지정, 공공주도 단지개발로 세계적 발전단지 조성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개발사업 이익공유 및 주민수용성 확보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 조성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연계 부품업체, 연관기업 집적화 국내 최대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지방소멸 극복

산·학·관 협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Jeollanamdo